



즉시 배포용: 2024년 1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정보 보안 인식 주간 선포

**Hochul 주지사는 정보 보안 인식 주관을 맞이하여 뉴욕 주민에게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당부**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과 기타 주정부 기관 파트너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모범
관행에 대한 인식 제고**

뉴욕주는 2024 “정보 보안 챔피언” 선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월 21~27일을 정보 보안 인식 주간(Data Privacy Awareness Week)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방식을 점검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당부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인식 주관을 맞이하여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는 다른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치 및 계정에서 개인정보 설정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및 다단계 인증 설정을 통한 보안 강화,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통한 장치 보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주관은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뉴욕 주민의 기본권인 데이터 보안을 타협하지 않고도 기술을 활용해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전역에서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보안 주관은 온라인에서 쉽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기업(및 기타 단체)이 사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보안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이버 보안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전국사이버안보연맹(National Cybersecurity Alliance)은 올해 뉴욕주를 개인정보 보호 챔피언(Data Privacy Champion)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선정 결과는 뉴욕주가 개인 및 단체가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ITS 정보 주무관인 **Dru R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개인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성에 대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 보안 주간은 ITS를 비롯한 주정부 기관 파트너들이 개인정보 및 기밀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뉴욕주 ITS 개인정보 위험 주무관인 **Michele J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사이트와 앱은 이름과 위치, 행동과 선호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합니다. 데이터 보안은 사회보장번호 및 의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나쁜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보 유출은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비상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세상에서 계정에 접속할 수 없거나 악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서로 다른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단순한 조치로 계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수집 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각종 장치와 제품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합니다. 모바일 장치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기기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원격으로 콘텐츠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 각 계정에 서로 다른,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복수의 짧은 단어로 구성되어 기억하기 쉽지만 컴퓨터가 추측하기 어려운 구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하거나 일반적인 문구는 피해 주십시오.
- 가능하다면 장치나 계정에 **MFA**를 활성화하십시오. 비밀번호 외에도 핸드폰 앱 코드 등을 사용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발송한 이메일, 문자, 음성메시지에 주의합니다. 특히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조심합니다.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열거나 클릭하지 않습니다.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온 메시지일 경우, 기업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등록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발신자의 신원을 이중 확인합니다.

-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합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기 전 앱의 개인정보 정책을 확인합니다.
- 소셜 미디어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생일, 전화번호, 집주소, 직업이나 취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은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계정이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VPN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암호화하고 위치 정보를 가려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추가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장소에서 온라인을 이용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공공 무선 핫스팟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네트워크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타인이 온라인 활동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타인이 스크린을 훑쳐보거나 “어깨 너머로 살펴보는” 등 온라인 활동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은행 계좌 등 민감한 정보에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IT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 대행인 Amanda Hi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뉴욕 주민이 위의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rienne A. Harris 뉴욕주 재정서비스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과 사기 방지 조치는 글로벌 재정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격 등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DFS는 선도적인 사이버보안 기준을 도입하고 모범관행을 의무화하고 다단계 인증 등 효과가 입증된 보호 조치의 사용을 확대해 전국을 선도할 것입니다."

Robert J. Rodriguez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노린 잠재적 사기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와 인터넷 보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에게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리며 의심스러운 첨부문서 또는 이메일을 열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원 도용 피해자거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뉴욕주 소비자보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 연락하여 신원 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소비자 지원 직통전화(Consumer Assistance Helpline) 1-800-697-1220 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주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주간

[개인정보 데이터 주간](#)은 유럽에서 진행된 데이터 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 행사의 일환으로 200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날(Data Privacy Day)로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협약인 컨벤션 108(Convention 108)에 조인한 날인 1981년 1월 28일을 기념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